

명신산업 (009900)

기업이슈 브리프 | 자동차/부품

NR

목표주가	NR
현재주가	27,600 원
시가총액	14,482 억원
KOSPI (9/28)	3,097.92 pt

성장성에 대한 고민, 해외로 눈을 돌리면 답이 보인다

Analyst 유지웅 _ 02 3779 8886 _ jwyo0@ebestsec.co.kr

컨센서스 대비

상회	부합	하회
●		

Stock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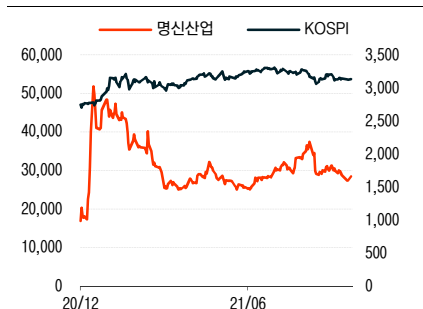
90 일 일평균거래대금	377.62 억원
외국인 지분율	2.0%
절대수익률 (YTD)	-39.5%
상대수익률 (YTD)	-47.4%
배당수익률 (21E)	0.0%

재무데이터

(십억원)	2017	2018	2019	2020
매출액	116	344	776	809
영업이익	9	14	60	66
순이익	-2	3	34	-89
ROE (%)	-2.2	5.1	53.8	-67.4
PER (x)	n/a	n/a	n/a	-12.7
PBR (x)	n/a	n/a	n/a	6.6

자료: 명신산업,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K-IFRS 연결 기준

Stock Price



글로벌 전기차 업체 따라 본격적인 외형성장에 진입

동사는 자동차용 핫스탬핑 기반 차체부품 업체로 국내 및 중국, 미국법인을 통해 현대차그룹과 미국소재 글로벌 전기차 업체를 주력으로 공급 중. 매출 비중은 2021년 상반기 현대차그룹과 전기차 업체 비중이 각각 45%, 55%를 기록. 전기차 업체로 대당 약 20여가지 핫스탬핑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대당 약 80만원 수준의 contents를 주력 모델 전량에 공급중인 것으로 추정. 2019년 기준 전기차 업체당 매출 비중은 약 35%에 불과했으나, 2021년 하반기에는 60%를 넘어서며 본격 외형성장 트리거로 작용할 전망

핫스탬핑, 전기차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자동차 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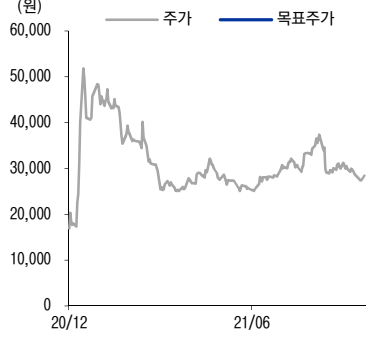
전기차는 특성상 배터리 탑재로 인해 파워트레인 무게가 50% 이상 증가해 기본적으로 차체 경량화에 대한 요구가 큼. 일례로 코나 일렉트릭의 경우 2.0엔진 트림에 비해서도 약 280kg의 무게가 증가. 핫스탬핑의 공법은 고온에서 급속도로 제품의 냉각과 성형을 동시에 시행하는데, 적용시 해당 제품은 인장강도가 최대 3배 증가하는 반면 무게는 25% 가량 감소해 주행안전 및 주행거리 확대를 위해 전기차에서는 본격적으로 적용 중

전기차 고객사 공급으로 2022년에도 외형성장 +30% 이상 가능할 것

동사의 상반기 매출액 규모는 5,306억원(YoY +49%)을 기록했으며, 하반기에도 YoY +20%이상 성장 기대. 현대기아차의 3Q21 국내공장 생산량은 YoY -6.7%가량 감소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차업체도 3Q21에 YoY +56% 가량 생산증가가 예상. 특히 최근 전기차 업체의 상해공장 가동률은 9월 들어 현격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연간환산 캐파 57만대 이상)되며,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해 궁극적으로 2022년에도 공급사인 동사의 꾸준한 외형성장의 핵심변수가 될 것(YoY +30% 이상). 전기차 업체의 연간 생산량은 2022년에는 미국/유럽 신공장 가동효과까지 가세하며 YoY +70% 이상 증가 기대

유난히 높은 성장률과 이익 창출능력, 새로운 밸류에이션으로 귀결

2021년 기준 동사의 ROE는 약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자동차 산업 내에서는 드문 수준의 수익 창출능력 보유. 추정 P/E는 2021년 기준으로 약 23.5x 수준이며, 2022년의 가파른 외형성장 감안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부여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

명신산업 목표주가 추이		투자이견 변동내역											
(원)	주가 목표주가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과락율(%)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과락율(%)		
					최고 대비	최저 대비	평균 대비				최고 대비	최저 대비	평균 대비
		2021.09.29 2021.09.29	변경 NR	유지음 NR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유지음)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 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합계	+15% 이상 기대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93.8% 6.2%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pm 20\%$ 에서 $\pm 15\%$ 로 변경
				100.0%	투자 의견 비율은 2020. 7. 1 ~ 2021. 6.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 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